



반세기 목회자 기독교대한감리교단 지도자

김광우 목사 (1906-1990)

김광우 목사는 황해바다 덕적도에서 태어났다. 그는 1928년 일본 와세다 대학에서 정치경제학을 연수하고, 1937년 서울 감리교신학교를 졸업했다. 이후 강원도 철원군 월정리감리교회에서 4년간 시무하였으며, 금강산 연회 준회원으로 임회했다. 김광우 목사는 1940년부터 1945년까지 서울 북지방 원동감리교회에서 목회하였고, 1948년 인천 지방 감리사를 역임했다. 이후 기독교대한감리교 총리원에서 교육국, 전도국, 사회국 총무를 8년간 역임한 후, 서울북지방 감리사와 자교교회 담임 목사로 시무했다. 1963년부터 1972년까지는 서울 남지방 정동교회 담임목사로, 1967년부터 1968년까지는 서울 마포지방 한강 중앙감리교회를 개척했다.

김광우 목사는 1979년에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1980년에 우드랜드힐스 한인연합감리교회를 개척했다. 그리고 김광우 목사는 1990년 2월 17일에 소천하였다.

김광우 목사의 봉사 생활은 매우 활발하였다. 1952년부터 1960년까지 연세대학 재단이사과 배재학원 이사 및 이사장을 역임하였고, 이화학원 이사와 서울 감리교신학대학 및 대전 신학대학 이사를 맡았다. 기독교 세계봉사회 부회장, 기독교대한감리회 총리원 이사, 기독교대한감리회 중앙협의회 위원, 유지 재단 이사와 공주 영명 학교 이사를 역임하였으며, N.C.C. 부회장과 N.C.C.K. 회장을 지냈다. 김광우 목사는 또한 학교법인 이화학당과 배재학당 이사를 역임하였다. 말레이시아 사라왁 선교를 개척하고, 삼일 학원 이사장과 이대 국제 재단이사로서 교육과 선교 활동에 크게 기여하였다.

김광우 목사는 “나의 목회 반세기”라는 제목의 자서전을 남겼다



CLAREMONT
SCHOOL OF THEOLOGY